

GWANGJU F.C INFORMATION

2011 K리그/리그컵 홈경기 일정 안내				
Round	경 기 날	파 시 간	상 대 팀	
1	3월 05일(토)	15:00	대구	
4	4월 02일(토)	15:00	포항	
5	4월 09일(토)	15:00	상주	
리그컵3	4월 20일(수)	19:00	전남	
7	4월 24일(일)	15:00	서울	
8	5월 01일(일)	15:00	대전	
리그컵5	5월 11일(수)	19:00	울산	
11	5월 22일(일)	15:00	인천	
13	6월 11일(토)	19:00	성남	
14	6월 18일(토)	19:00	전남	
17	7월 09일(토)	19:00	강원	
18	7월 16일(토)	19:00	전북	
20	8월 06일(토)	19:00	경남	
23	8월 27일(토)	19:00	제주	
26	9월 25일(일)	15:00	부산	
27	10월 02일(일)	15:00	울산	
29	10월 23일(일)	15:00	수원	

광주FC

2011 K리그 시즌권 판매

회원권 가격안내

- ▶ 일반인(E·W석) : 어른 10만원 / 청소년 5만원 / 어린이 3만원 / 홈경기 모든 게임
- ▶ 서포터즈(N석) : 어른 6만원 / 청소년 4만원 / 어린이 2만원 / 홈경기 모든 게임

회원권 구매안내

- ▶ 온라인 : www.ticketlink.co.kr (신용카드 및 무통장 거래 / 24시간 운영)
- ▶ 오프라인 : 광주FC사무국, 광주FC 각 매표소 (신용카드 및 현금 구입 / 평일 09시~18시 운영)

무료제공 혜택

- ▶ 어른 : 유니폼·리플렛카드(패밀리카드 혜택 포함) 제공
- ▶ 청소년·서포터즈 : 조마 티셔츠·리플렛카드(패밀리 카드 혜택 포함) 제공
- ▶ 어린이 : 조마 티셔츠·구단사인볼·짐백 제공

All for one 2011

빛고을

광주FC서포터즈

광주FC 공식 서포터즈 빛고을에서 승리의 순간을 함께 즐길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회원등록 및 원정경기 참여 신청은 홈페이지를 이용바랍니다.
www.gwangjufc.co.kr



광주FC 공식 후원업체 GWANGJU FOOTBALL CLUB SPONSORS



정상에 등극하라!

경제강국 KOREA!

온갖 악조건과 위기의 상황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를 잃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포기할 줄 모르는 용기와 집념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신화-

광주은행은 지역민과 함께 힘겨운 경제한파 속에서도
정상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제강국 KOREA를 향해 - 다시한번 FIGHTING!

KJB  **광주은행**



산악인 김승민
열산악인이 없는 장악산으로 4시간 40분 만에 정상에 등극하며 광주은행 행기를 들고 기쁜 행진한다



통권 제10호

VIEW

GWANGJU F.C Matchday Program 2011 **VIEW**-No. 10

○ 발행일 : 2011년 7월 16일 ○ 발행처 : 광주FC 사무국·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423-2 월드컵경기장내 ·☎ 062)-373-7733

현대오일뱅크 K리그 2011 · 18라운드

2011. 07. 16 SAT 19:00 KICK OFF

광주월드컵경기장

광주FC  vs  전북현대

POINT of VIEW

관전 포인트 광주FC vs 전북현대



광주FC, 안방서 전북에 치욕 갚는다

오는 16일 오후 7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대결
강원·부산·전남 등에 1패 후 설욕전 '승리약속'

열정과 패기로 뚝뚝 뚫친 광주FC가 K리그 선두 전북현대를 상대로 복수전에 나선다.

광주FC는 오는 16일 오후 7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전북 현대를 상대로 현대오일뱅크 K리그 2011 18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후반기 첫 홈경기에서 승리의 기쁨을 맛본 광주는 이번 경기에서 지난6라운드 대패의 수모를 설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광주는 주중 훈련과 연습경기에 집중하며 무서운 공격력으로 무장했다. '이 에는 이 있음에는 있음' 닥군(닥치고 공격의 줄임말) 전북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전북이 2경기 연속 무승으로 주춤하고 있는 만큼 광주로선 절호의 기회가 온 셈이다. 최만희 감독은 "팀이 안정되지 않았을 때 원정경기에서 패배의 당했다"며 "이제는 광주도 달라졌다. 홈경기를 치르는 만큼 철저히 준비해 전북을 무릎 꿇리겠다"고 다부진 각오를 밝혔다.

실보다 득이 많았던 전복전 패배

K리그의 높은 벽을 빠져리게 느끼게 해준 전북이다. 광주는 지난 4월 16일 전북 원정길에 나섰다. 자신감은 충만했다. 홈구장에서 상주상무를 상대로 연패의 사슬을 끊은 직후였다. 전반 15분까지는 광주가 준비한대로 흘러갔다. 전반 3분 이승기의 날카로운 프리킥에 이어 전반 8분 박기동이 PK를 얻어냈다. 하지만 염동균의 선방으로 득점 기회를 놓친 광주는 흔들렸다. 무리한 공

격을 시도하면서 역습기회를 수시로 내줬고, 전반에만 5골을 허용했다. 그동안 신들린 선방을 보여준 박호진도 어쩔 수 없었다. 유효슈팅은 광주가 8개, 전북은 10개로 양팀 모두 선전했다. 점유율을 내준 건 오히려 전북이었다. 승부를 가른 건 경험의 차이.

최만희 감독은 "득점 기회를 놓친 뒤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하다 연거푸 골을 내줬다"며 "수비하면서 공격도 해야 한다. 우리는 그 점이 부족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판단은 정확했다. 젊은 선수들은 주눅들기보다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광주는 전북전 이후 5승을 거뒀다. 디펜딩 챔피언 서울을 꺾었고, 반짝 1위였던 대전을 2:1로 눌렀다. 강원을 상대로 원정 첫승을 신고했고, 성남을 안방으로 불러들여 패배의 쓴맛을 보여줬다. K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전북이지만, 홈에선 강한 광주라면 승점 3점에 도전해 볼 만하다.

상승세 광주 두 번 패배는 없다

올 시즌 광주는 울산을 제외하고 한 팀에 두 번 패한 적이 없다. 리그컵 첫 원정경기에서 5:0의 뼈아픈 패배를 당한 강원에게 홈과 원정경기에서 그 수모를 톡톡히 갚았다. 리그컵 2라운드 부산에게 1:0으로 패한 뒤 다음 원정경기에서 주양파울로의 극적인 동점골로 무승부를 만들어 냈고, 2:0으로 패한 전남에도 뛰어난 경기력으로 2:2 무승부를 이끌었다. 홈에서 1:0으로 패한 인천과는 원정에서 2:2 무승부를 기록했다. 한계를 모

르는 광주는 매 경기 부딪히고 깨지며 조직력을 쌓아가고 있다.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내일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빛고를 공격 트리오 + 이승기

K리그 최고의 공격축구로 상대를 제압하고 있는 전북현대는 '라이언킹' 이동국과 '외국인 트리오' 에닝요-루이스-로브렉으로 이어지는 공격라인을 갖추고 있다. 전북은 '40골-40도움'을 기록한 이동국을 잡기 위해 조기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시즌 초반 주춤했던 에닝요와 루이스는 다시 공격본능이 살아나며 무서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광주도 만만치는 않다. 신인 선수들로 구성된 팀이지만 K리그 강호들을 잇달아 물리치며 남다른 자력을 과시하고 있다. 특히 빛고를 공격트리오인 박기동, 김동섭, 주양파울로는 완벽한 조합으로 상대의 허를 찌른다. 골 가뭄을 겪고 있는 박기동은 여전히 위협적인 공격력으로 상대수비를 괴롭힌다. 지난 강원전에서 1도움을 올리며 자신만의 페이스를 되찾고 있다. 김동섭은 지난 맞대결 PK 실축을 이번경기 골로 만회하겠다는 각오가 대단하다. 주양파울로도 완전 이적에 성공하며 팀에 헌신적인 플레이를 다짐했다. 여기에 보너스로 올 시즌 신인왕을 노리는 이승기의 골 본능이 살아났다. K리그 선두 전북과 어려운 경기가 예상되지만 이들 삼박자가 조합을 이룬다면 무서울 게 없는 광주다.



2011 GWANGJU F.C MEMBERS

광주FC 선수단 소개

 감독 최만희 1958.8.21/중앙대 수원 2군감독(05~10)	 수석코치 여병규 1962.6.24/연세대 울산현고 감독	 수비코치 김정수 1975.1.17/중앙대 용인시청 수석코치	 공격코치 남기일 1974.8.17/경희대 천안시청 코치(09~10)	 전력분석 홍문기 1966.7.2/광운대 가요이 고등학교 감독	 트레이너 추원호 1968.12.24/영남대 대한트레이너협 정회원	 트레이너 박성필 1977.3.15/울지대 대한트레이너협 정회원	 주치의 이준영 1970.7.15/조선대 교수 조선대 정형외과학교실	 1 박호진·GK 1976.10.22/190cm/85kg 연세대																																										
 2 정우인·DF 1988.2.1/185cm/76kg 경희대	 3 박병주·DF 1985.3.24/185cm/79kg 단국대	 4 이 용·DF 1989.1.21/187cm/79kg 고려대	 5 임선영·MF 1988.3.21/185cm/77kg 수원대	 6 김은선·MF 1988.3.30/181cm/77kg 대구대	 7 이승기·MF 1988.6.2/177cm/67kg 울산대	 8 안동혁·MF 1988.11.11/176cm/74kg 광운대	 9 김동섭·FW 1989.3.29/187cm/78kg 장흥고	 10 박기동·FW 1988.11.1/191cm/83kg 송산대																																										
 11 조우진·MF 1987.7.7/177cm/70kg 포철공고	 13 김호남·FW 1989.6.14/178cm/73kg 광주대	 14 유동민·FW 1989.3.27/191cm/91kg 조산대	 15 유종현·DF 1988.3.14/196cm/92kg 건국대	 16 김성민1·FW 1987.5.11/185cm/75kg 호남대	 17 박 현·MF 1988.9.24/175cm/65kg 인원대	 18 김홍일·MF 1987.9.29/178cm/72kg 연세대	 19 박희성·MF 1987.4.7/170cm/68kg 호남대	 20 고은성·DF 1988.6.23/174cm/73kg 단국대																																										
 21 조상준·GK 1988.7.24/187cm/85kg 대구대	 22 김수범·DF 1990.10.2/176cm/68kg 창지대	 23 박성화·MF 1988.8.23/176cm/71kg 조선대	 24 박요한·DF 1989.1.16/177cm/73kg 연세대	 25 김성민3·FW 1985.4.19/175cm/70kg 고려대	 26 노한석·DF 1988.11.17/186cm/80kg 동국대	 27 임하람·DF 1990.11.18/186cm/87kg 연세대	 28 윤광복·MF 1989.1.25/180cm/74kg 조선대	 30 김성민2·FW 1990.9.27/181cm/73kg 전남과학대																																										
 31 허재원·MF 1984.7.1/188cm/81kg 광운대	 32 박상현·MF 1987.2.11/175cm/69kg 고려대	 34 안성남·DF 1984.4.17/172cm/69kg 중앙대	 35 이재찬·MF 1987.7.26/178cm/69kg 조선대	 37 정파울·FW 1988.6.2/188cm/66kg 브라질	 38 윤민호·MF 1987.1.21/177cm/73kg 강릉시청	○ 공격 포인트																																												
<table><tr><th>선 수 명</th><th>골</th><th>도움</th></tr><tr><td>김 동 섭</td><td>5</td><td>2</td></tr><tr><td>김 성 민1</td><td>1</td><td></td></tr><tr><td>김 성 민3</td><td>1</td><td></td></tr><tr><td>김 수 범</td><td></td><td>1</td></tr><tr><td>김 홍 일</td><td></td><td>1</td></tr><tr><td>박 기 동</td><td>2</td><td>2</td></tr></table>						선 수 명	골	도움	김 동 섭	5	2	김 성 민1	1		김 성 민3	1		김 수 범		1	김 홍 일		1	박 기 동	2	2	<table><tr><th>박 현</th><th></th><th>1</th></tr><tr><td>유 동 민</td><td>2</td><td></td></tr><tr><td>유 종 현</td><td>2</td><td></td></tr><tr><td>이 승 기</td><td>4</td><td>1</td></tr><tr><td>조 우 진</td><td></td><td>1</td></tr><tr><td>주앙파울로</td><td>6</td><td>1</td></tr><tr><td>허 재 원</td><td></td><td>1</td></tr></table>			박 현		1	유 동 민	2		유 종 현	2		이 승 기	4	1	조 우 진		1	주앙파울로	6	1	허 재 원		1
선 수 명	골	도움																																																
김 동 섭	5	2																																																
김 성 민1	1																																																	
김 성 민3	1																																																	
김 수 범		1																																																
김 홍 일		1																																																
박 기 동	2	2																																																
박 현		1																																																
유 동 민	2																																																	
유 종 현	2																																																	
이 승 기	4	1																																																
조 우 진		1																																																
주앙파울로	6	1																																																
허 재 원		1																																																



빛고을 전사들의 10문 10답

광주의 영원한 캡틴 박 기 동

캡틴 박기동이 골 침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매 경기 위협적인 플레이로 상대 수비를 뒤흔들고 찬스를 만들어 내지만 정작 득점은 거리가 멀다. 지난 4월 전남전 부상으로 한 달여 간 결장한 게 아쉬울 뿐이다. 하지만 광주의 팬들은 박기동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다. 광주FC를 대표하는 주전 골잡이, 역사적인 광주FC의 첫 골의 주인공, 광주의 첫 태극마크, 등번호 10번, 팀의 주장. 그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트라이커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1. 축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 초고 때부터 축구를 좋아하기는 했지만 정식으로 배우진 않았다. 당시 전국 초고 동아리 축구대회에서 우승을 했는데 나를 눈여겨봤던 대전의 중리 중학교에서 축구를 해보겠느냐고 제의했다. 평소에도 늘 축구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이 때부터 정식으로 축구를 시작하게 됐다.

2. 일본 무대를 접고 광주FC에 입단한 소감은

▶ J2리그에서 뛰던 당시 개막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부상을 입었고 제대로 된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다. 방황하다가 결국 한국으로 돌아올 결심을 했다. 드래프트 신청을 했는데, 영광스럽게 14명의 우선지명선수에 뽑히게 됐다. 광주가 연고지는 아니지만 일본에서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나의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점에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3. 선호하는 플레이는

▶ 개인적으로는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의 아스날과 같은 세밀한 패스플레이를 매우 선호한다. 아직 신생 팀이고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경험이 부족해 정교한 패스 위주의 플레이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점점 경기를 치르면서 팀이 안정적으로 바뀌면 충분히 그러한 플레이를 할 수 있다고 본다. 팬들에게 그러한 플레이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4. 최고의 순간, 최악의 순간은

▶ 모든 축구선수는 꿈이 그러하듯이 잠깐이나마 국가대표에 발탁되었 게 내 축구인생에 있어서는 최고

의 순간이었다. 그곳에서 실력이 뛰어난 많은 선수들을 보며 다시 국가대표로 발탁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최악의 순간은 꿈에 그리던 일본 진출 이후 개막을 1주일 앞두고 부상을 당한 것이다. 그 부상 때문에 두 달 가량을 쉬고, 결국 10경기 밖에 뛰지 못했다.

5. 좋아하는 골 세리머니는

▶ 원래 교회를 다녔었는데 운동을 하느라 계속 다니지 못했다. 하지만 광주에 와서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 생기고 그 덕분에 박요한 선수와 유종현 선수를 따라서 다시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 골을 넣게 된다면 기도하는 세리머니를 해보고 싶다.

6. 자신의 장단점은

▶ 기술적인 부분이나 움직임은 다른 선수들에 비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파워나 세밀한 플레이 등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 장점은 극대화시키고 단점은 더욱 더 채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7. 올 시즌 목표는

▶ 일단 개인적인 목표보다는 팀의 목표가 우선이다. 신생팀이라고는 하지만 올 시즌 리그에서 10승 이상은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목표로는 일단 신인왕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10골 이상의 득점을 해보고 싶다. 또한 어시스트도 될 수 있는 한 많이 기록하고 싶다.

8.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은

▶ 누가 뭐래도 최만희 감독님이다. 일본에서 실패하고 한국에 돌아왔지만, 이곳에서 실력을 제대로 보

여주면 된다. 항상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다. 마치 아버지 같은 자상함과 친절함으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큰 힘이 되고 있다. 선수들 중에서는 박호진 선수가 항상 좋은 말을 많이 해주고 도움을 줘서 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9. 국가대표에 차출 이후 골 침묵에 대한 이유는

▶ 국가대표에 뽑힌 이후 아직까지 무득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나름대로 경기력은 그 전에 비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골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찬스를 놓치고 있는 것 같다. 아무래도 국가대표에 다녀온 이후 무언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발생한 것 같다. 하지만 이러한 부담감을 깨고 골이 터지기 시작하면 다시 정상궤도에 올라서 골행진이 이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빨리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10. 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광주FC의 팬들이 더욱 더 많은 응원과 성원으로 보답해준다면 선수들이 더 멋진 경기와 결과로 보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더 많은 팬들이 경기장을 찾아서 현장에서 선수들을 응원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선수들도 더 열심히 팬들의 성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광주FC 명예기자 박양태]



NEWS 구단 뉴스

빛고을 해결사 주앙파울로 완전 이적

광주FC, 오는 2013년 12월까지 계약



Silvaaraujo)가 완전 이적 계약서에 최종사인을 함으로써 오는 2013년 12월까지 광주 소속으로 K리그에 참여하게 됐다.

박기동, 김동섭과 빛고을 공격터리로 불리며 올 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 주앙파울로는 전반기에만 6득점 1도움(팀 내 최다 공격포인트)을 올리는 등 광주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선수로 자리 잡았다. 주앙파울로의 장점은 170cm의 단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엄청난 스피드와 개인기. 그리고 뛰어난 킥력이다. 특히 그의 절묘한 감이치는 명품 수준이다.

그는 지난 2월 영인 당시만 해도 한국생활에 쉽게 적응하지 못했다. 훈련기간이 짧아 호흡을

맞출 시간이 부족했고, 추운 날씨 탓에 몸 상태도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동료들의 도움으로 지난 4월 16일 전북전에서 마수같이 골을 터뜨렸고 이후 수석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광주는 주앙파울로가 득점한 6경기에서 3승 2무1패로 좋은 성적을 거뒀고, 그는 위기 때마다 팀을 구해내면서 빛고을의 새로운 해결사로 떠올랐다.

브라질 ABC 클럽에서도 최근 공격력으로 주목 받아 온 주앙파울로는 하우 그란지 두 노르제(rio grande do norte) 주 1부 리그에서 19경기에 출장해 17골을 터뜨리는 등 폭발적인 공격력으로 리그 득점왕을 차지하기도 했다.

이번 계약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된 주앙파울로는 "시즌 초반에는 날씨가 추워 적응하기 어려웠는데 첫 골을 넣고, 감독님이 수시로 격려해 주 많은 도움이 됐다"며 "올 시즌 광주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광주 신인키워드 '이승기·유종현'

K리그 17라운드 베스트 11 선정

광주FC의 신인 키워드 이승기와 유종현이 '현대오일뱅크 K리그 2011' 17라운드 베스트 일레븐에 선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주말(9, 10일)에 열린 현대오일뱅크 K리그 17라운드 8경기를 평가한 결과 광주의 이승기(MF)와 유종현(DF)을 각각 베스트 일레븐으로 선정했다. 이날 경기에서 선재골과 썩기골을 선공시켜 광주에 후반기 첫 승을 안긴 이승기는 공격과 수비에 모두 활발히 가담하며 원정팀을 몰아붙였다는 평가와 함께 평점 8점을 받았다.

특히 시즌 개막을 앞두고 부상으로 한동안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던 이승기는 현재 4골 1도움을 기록하며 올 시즌 신인왕 후보에도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지난 4월 K리그 7라운드 서울과의 경기에서 공격수 출신다운 파워 넘치는 수비로 팀을 승리시킨 유종현은 이번 경기에서도 큰 키를 바탕으로 공중 볼을 책임지며 팀의 무실점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왼쪽 사진. 이승기 선수

아래 사진. 유종현 선수



백화점 · 패션 스토리 · 이마트

광주신세계 TOWN

1995년 4월 10일 광주법인 설립!
광주신세계는 광주기업입니다.

- 2002년 광주·전남기업 중 제일번째로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습니다.
- 광주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모든 금융활동이 현재에서 이루어집니다.
- 지역상품 판로 확대 등 밀착 마케팅을 통한 상생경영을 펼치고 있습니다.



광주신세계